

전남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오늘 목포 신안비치호텔서 관계자 200여 명 참석 활성화 기여 표창·상호 정보 교류 등 역량 강화

전남도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오후 1시 30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2019년 전라남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과 박지원 국회의원, 김신남 목포 부시장, 박상철 광주지방조달청장, 진효인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장, 나항도 전라남도농공

단지협의회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도,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가 지역사랑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 구매 및 홍보, 환경안전 분야 기술 지원을 한다.

워크숍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과 관계자 19명 표창, 농공단지 관련 정책 및 시책 소개, 입주기업 간 상호 정보 교류 등을 통해 농공단지 기업의 역량 강화를 꾀한다.

전남에는 총 68개 농공단지에 1300여 중소기업이 입주, 1만6000여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농공단지 생산액은 5조 원, 수출은 12억 달러를 달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동구, 치매안심마을 행복아파트 눈길

광주 동구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마을 행복아파트' 사업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행복아파트' 사업은 공용공간에 치매인식 개선·인지강화 디자인을 도입해 이웃 간 소통을 늘리고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기능 향상을 꾀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관내 치매안심마을(지산·산수·계림동) 내 아파트거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진아하이빌, 신양맨션, 대명아파트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인지강화 벽화조성 ▲지역건강 나눔텃밭 가꾸기 ▲치매인식개선 경관조명 설치 ▲개성 있는 문패제작 ▲건강계단 설치 등을 주민과 함께 조성해 나가고 있다.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희망 등록 행사 개최

광주 서구는 2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공동으로 '헌혈 및 장기 기증희망 등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서구청 공무원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헌혈은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5kg 이상 참여가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복용 및 주사를 맞은 경우, 특별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없다.

남구 "어르신에게 치명적 폐렴구균 무료 접종"

광주 남구는 19일 "노년기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폐렴구균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명적인 균으로, 폐렴을 비롯해 뇌수막염, 심내막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알려졌다.

특히 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체내를 순환하는 균혈증을 동반할 경우 사망률이 60%에 이르고, 뇌수막염에 이르면 사망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폐렴구균에 의한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1954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북구,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광주 북구가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는 교육을 실시한다.

북구는 "내달 18일까지 두암·광주북·광주동·용봉·본촌초등학교 등 5개 학교 26개 학급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 분야의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쓰레기통을 말려줘!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질풍노도의 쓰레기 ▲쓱쓱 쓱쓱 잘 먹었습니다 ▲플라스틱은 고래밥이 아니에요 ▲땅을 살리는 건전지 분리수거함 ▲내가 만든 빨간 수세미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실시한다.

광산구, 5·18 대변인 윤상원 열사 일대기 그림 제작

광주 광산구가 5·18광주민중화운동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제작한다.

윤상원 열사를 5·18 상징인물로 세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산구는, 그의 유년기와 들불야학 시절, 5·18 시민군 대변인 활동과 도청 사수·산화까지를 이야기가 있는 총 10점 미술품으로 남기기로 했다.

광산구는 8월 그림제작 용역 공개입찰을 시작으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심우재(대표 하성흠)'를 최종 사업수행자로 결정했다.

임형택 기자



한전공대 범 시도민 지원위 출범 25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비전선포 및 범 시도민 지원위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복한 광주 공무원들"...5급 승진 최대 7년 빨라

9급→5급 승진에 21.9년 걸려 전국 평균 26.6년·경기 28.8년

광주에서 9급 지방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 다른 지역보다 짧게는 7년 가까이 빨리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

처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평균 승진요소 연수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방직공무원은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21.9년이 걸렸다.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은 △(9급에서) 8급 2.3년 △7급 3.5년 △6급 7.3년 △5급 8.8년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8급 2.3년 △7급 4.1년 △6급 9.2년 △5급 11.0년으로 9급에서 5급까지 26.6년 걸렸다.

광주 승진 속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16.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았다. 부산(22.6년), 충북(24.8년), 대전(24.9년)이 광주의 뒤를 이었다. 경기(28.8년)와 전남(28.2년), 충남(28.1년)은 광주보다 6년 이상, 전국 평균보다 1.5~2.2년 길었다.

전국적으로 승진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구간은 6급에서 5급으로 평균 11년에 달했다.

광주시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설치하세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가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에 대비, 스마트폰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을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에서는 전

국(초) 미세먼지 농도와 가장 가까운 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값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앱 메뉴는 △시도별 대기현황 △내일의 대기정보 △대기질 주의보/경보현황 △대기환경 기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연내 대기오염측정소 2곳을 신설하고 대기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